

##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

가족원 유형별 연구

홍 순 혜\*\*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노인은 서로 다른 가족원 유형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노인이 가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노인의 개인적 특성, 가족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가족원이 제공하는 어떤 종류의 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우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를 위해 가족원 유형으로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손녀, 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으며, 지지의 종류로는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의 4가지가 조사되었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8명이 유의 표집되었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여러 가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를, 아들은 금전적 지지를, 며느리는 도구적, 딸은 정서적, 금전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밖에도 사위, 손주의 지지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특성과 관계망의 특성 중 여러 요인들이 각 가족원 유형이 제공하는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노년기 적응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세부과제였음.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전공 부교수

다양한 지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 적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좋고, 그 가족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노인들이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며느리의 지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더 많이 제공받고 있었다. 배우자의 지지여부는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이 많았으며,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는 지지의 제공 여부보다는 그들의 존재여부에 의해 우울정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지적 활동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 1. 서론

노년기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기능 저하, 역할의 상실, 소득의 감소,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활동범위를 공식적 단체나 활동으로부터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의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망의 도움과 지지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

노인의 비공식적 관계망 중 가장 중요한 망은 가족이다. 특히 한국노인의 경우 가족은 사회적 지지망의 핵심이며 부양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박영란, 1987). 노인부양체계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 중심적 문화와 가치관에 근거하며, 동시에 미비한 노인복지제도라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선가족 후국가'적 노인부양 입장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중요성은 서양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인을 공적으로 부양하는 데 따르는 정서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노인부양을 위해 가족과 친척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개발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최정아, 1991).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 학계도 198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노인의 가족과 그 밖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부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과 같이 가족 중 특정 유형의 성원에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었고(민무숙, 1995; 윤희·한경혜, 1994), 일부 연구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망의 일부로서 가족을 집합적으로 다루었다(박영란, 1987; 서병숙·이현, 1995; 최정아, 1991; 최정아·서병숙, 1992).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망의 특성과 지지기능, 그리고 이것이 노인의 노후적응, 복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양옥경, 1998; 최정아, 1991) 또한 가족의 지지가 노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갖는 완충효과(서미경, 1990; 윤경아 등, 1992)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가족은 다양한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을 둘러싼 관계망의 성원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지기능을 수행한다. 비공식적 관계망 중 가족과 친구는 노인에게 서로 다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배우자는 자녀와는 다른 형태의 지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Cantor(1979)는 노인에게 어떤 지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친밀성과 같은 노인과 관계망 성원 사이의 관계성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으며 Shanas(1979)의 연구는 배우자, 자녀, 먼 친척 순으로 노인이 자신에 대한 부양제공자로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노인에게 서로 다른 종류 및 정도의 지지를 제공하는 현상은 가족원들이 가족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 때문에 지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해지고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Dono et al., 1979; Litwak, 1985, Rook & Schuster, 1996).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비공식적 지지망들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가족원들 중 배우자나 자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런 가족원 유형을 집중 연구하는 것도 뜻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내에서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을 점하고 노인과 서로 상이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노인에게 어떻게 달리 지지를 제공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지지가 노인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측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노인은 각기 다른 가족원 유형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둘째, 노인이 얻는 가족원의 지지와 관련된 노인의 개인적 및 가족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이 각기 다른 가족원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정신건강(우울)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노인의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망인 가족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가족원

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지의 형태와 이것의 노인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가족망을 집합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원 유형에 따른 개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은 가족구성원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집합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나(서미경, 1990; 최정아, 1991) 다양한 가족원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지지의 내용이 제공되며 이들의 지지와 관련해 서로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원 유형별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망 속의 성원들이 어떤 조건하에서 노인에게 지지적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노화의 진행과 더불어 현격한 저하를 나타내는 일상생활동작능력과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망의 특성이 노인이 사회 관계망 속의 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와 노인의 우울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노인의 관계망 속의 모든 성원들이 노인에게 지지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지지가 동일하게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많은 가족원의 지지유형을 밝히려는 이 작업은 앞으로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가족 지지망을 확대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나아가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타인, 집단, 지역사회 등에 의한 사회적 결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지로(Lin et al., 1979)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최정아, 1991)이라고 할 수 있다. Weiss는 사회적 지지를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의 확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지도 및 지침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김혜원, 1996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에 대한 분석 즉,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정의하는 방법과 지지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의하는 방법이 흔히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은 사회적 관계망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비공식적 집단과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은 개인의 삶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망에 대한 분석에서 고려되는 것들로써 크기, 접촉빈도, 거리, 밀도, 안정성, 동질성,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능적인 측면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와 관련성이 깊다. 학자들마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를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사회활동적 지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지원, 1985; Caplan & Killiea, 1976; Schaefer et al., 1981).

## 2) 가족의 지지

가족은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집단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서적, 금전적, 도구적 측면 등에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란, 1987; 서미경, 1990). 가족의 지지기능이 약할 경우는 친척지지망이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지지를 가장 잘 보완해 주고 있다(최정아, 1991; 최정아·서병숙, 1992). 가족원 중 배우자는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가장 빈번히 수행하며(송효석, 1988), 동거하는 성인 자녀가 제공하는 지지와 유사한 유형 및 정도의 지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ennstedt et al., 1993).

자녀들은 정서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도구적 지지의 일차적 제공자이다. 서구에서는 주로 딸들이 노인에게 대한 주부양자로서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Brody & Schoonover, 1986) 노인에게 대한 주부양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도 노인부양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며느리(전길양·김태현, 1993)가 노인에게 대한 주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이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른 사회적 관계망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Brown, 1974). 형제자매는 자녀에 비해 주부 양자로서의 역할은 약하지만 노인이 위기나 특별한 욕구에 당면했을 때 다른 가족원의 부양 노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Hooyman & Kiyak, 1993). 노인에 대한 부양 부분에서 부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3)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요인들

노인의 관계망 속의 모든 성원들이 노인에게 지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까지의 연구는 가족망의 크기가 관계망 성원과의 접촉빈도 및 노인이 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Arling, 1987). 또한 노인과 관계망 성원들과의 지리적 거리도 접촉빈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의 정도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최정아, 1991).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그리고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하는 노인 미망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도구적 지지를 더 받는 경향이 있었다(Choi & Wodarski, 1996). 관계망의 크기는 재정적 지원 보다는 도구적 지지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망의 친밀도도 노인이 받는 지지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박영란, 1987).

가족원의 성별도 지지의 형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욕시키기, 식사 먹여주기, 옷 입혀주기와 같은 개인적 도움은 흔히 여성, 즉 부인이나 딸에 의해 수행되고, 남성은 주로 경제적 도움과 같은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Cantor, 1991; Stroller, 1990).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노인은 낮은 노인에 비해 심신의 기능저하로 인해 도구적 지지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러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하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함에 따라 노인들이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기존의 관계망으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Antonucci, 1985; Stroller & Earl, 1983). 그러나 Choi와 Wodarski(1996)의 연구는 비공식적 지지의 정도는 노인에 대한 부양요구를 증가시키는 신체적, 기능적 건강의 약화보다 자녀의 수 또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더 관련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 4) 가족의 지지와 우울

그 동안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 및 다양한 정신건강 측면, 생활만족도, 적응,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정신건강 또는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효과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ling, 1987; Cohen & Wills, 1985; Eaton, 1978; Krause, 1986; Krause et al., 1990; Lin et al., 1979; Thompson & Heller, 1990; Wellman & Hall, 1986).

이 연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지지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 Macguire는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 사이에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그 관련성은 매우 순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장인협·오세란, 1996). 즉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런 관계의 단절에 의해 우울이 더욱 악화되며 동시에 우울증 환자에 의한 철회는 지지체계의 성원들의 이탈을 낳게 되고, 이 또한 우울의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는 국내의 몇몇 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서미경의 연구(199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우울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가족의 금전적, 정서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 정도는 가족의 금전적 지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정신건강 또는 생활만족도 등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는데, 일부 연구는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서병숙·이현, 1995) 일부 연구는 지지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최정아, 1991).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해 갖는 완충효과도 연구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서미경, 1990) 그리고 주관적 안녕(윤경아 등, 1992)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가족이나 친척을 집합적으로 다루고 있지 가족구성원 개별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최정아(1991)의 연구는 가족 및 친척의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그 외에 가족의 사회활동적, 도구적 지지와 친척의 도구적 지지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연구방법

#### 1) 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는 지지 수혜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들의 다수가 모이는 복지관, 노인정, 교회나 성당, 공원, 시장, 자택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표본수를 2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208명의 노인들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를 위해 표본을 무작위 선정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주소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편의적으로 표집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고루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자료는 서울시내 21개 구와 경기도 내의 6개 시에서 고르게 수집되었다. 차후에 제시되는 <표 1>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측면 등에서 다양한 노인들이 골고루 조사에 포함되었다.

자료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대학생 10명에 의해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이었으며, 면접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6시간의 사전훈련이 제공되었다.

#### 2) 측정방법

설문지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 가족망의 구조, 가족의 지지기능, 노인의 우울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노인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IADL)이 포함되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능력(ADL) 대신 IADL을 측정한 이유는 자료의 수집이 자택뿐만 아니라 복지관, 교회, 성당, 공원, 시장 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나오는 노인들의 ADL 기능의 손상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IADL의 기능을 측정하였다. IADL은

전화사용, 외출이나 여행, 장보기, 식사준비, 집안일, 약 복용, 금전관리의 7가지 항목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 3점, 타인의 도움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경우 2점,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1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IADL 점수가 높은 것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의 유형에 따라 관계망의 크기 및 성원들과의 접촉빈도, 그리고 동거 가족수가 측정되었다. 가족망을 구성하는 성원으로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본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확대가족으로서의 가족을 조사하였다. 관계망의 크기는 각각의 관계 유형에 몇 명의 성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가족유형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를 ‘거의 매일’(5점), ‘일주일에 서너 번’(4점), ‘1주일에 1번’(3점), ‘1달에 2~3번’(2점), ‘1달에 1번 이하’(1점)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지지기능은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의 4가지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해당 가족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활동적 지지는 가족원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여가를 즐기는지’, 도구적 지지는 가족원이 ‘이플 때 시중을 들어주거나 집안 일을 돌보아 주는지’, 금전적 지지는 ‘생활비나 용돈 또는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지’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지지형태에 대해 각 가족원 유형이 지지적인지 아닌지, 즉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지지 제공여부를 물어보았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 우울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노인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백석(1996)에 의해 개발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Yesavage 등(1983)에 의해 개발된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기백석과 이철원(1995)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 Version)의 단축형이다. 15문항으로 구성된 이 단축형 척도는 노인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예’ 혹은 ‘아니오’의 양분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의 총점은 15점이 만점이다.

### 3) 자료의 분석

설문지가 회수된 208명의 자료가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아들, 딸 등의 8가지 가족원 유형에 해당하는 가족원을 1명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만 노인이 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초점은 각각의 가족원 유형에 속하는 가족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인은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고 어떤 노인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차이에 관련된 노인의 특성 및 관계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t-test와 X<sup>2</sup>-test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 8가지 가족원 유형 모두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는 노인의 수는 매우 작았으므로 부모의 지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제외되었다.

노인의 우울과 가족의 지지와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 노인을 가족원이 없는 경우, 가족원이 있지만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 지지적인 가족원이 있는 경우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이 세 집단 사이에 노인의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F-test를 실시하였으며, Duncan 사후검증 test도 병행하였다.

## 4. 결 과

###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를 위해 면담에 응한 노인 208명 중 남자가 19.9% 여자가 80.1%를 차지하였다. 연령 분포는 60~69세가 37.0%, 70~79세가 43.3%, 80세 이상이 19.7%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상도 22.2%가 되었다. 약 60%의 노인이 현재 사별을 한 상태이며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율은 38.9%였다. 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3.6%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만 원 미만으로 29.5%이었는데, 면담 과정에서 노인들이 정확하게 가족의 수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대상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는 약 10%였으며, 노인을 포함하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	특 성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41	19.9	종 교	불 교	51	24.8
	여	165	80.1		카톨릭	15	7.3
나 이	60~69	77	37.0		기 타	1	0.5
	70~79	90	43.3	가 족 월소득	50만원 미만	43	29.5
	80 이상	41	19.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5	23.9
교육 수준	무학	78	3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9	33.6
	국 퇴·졸	59	28.4	200만원 이상	19	13.0	
	중 퇴·졸	25	12.0	동 거 가족수*	1	20	9.7
	고 퇴·졸 이상	46	22.2		2	47	22.7
결혼 상태	기혼	81	38.9		3~5	107	51.7
	사별	124	59.6		5+	33	18.0
	미혼	1	0.5	IADL**	0	126	60.6
	재혼	2	1.0		1~2	49	23.6
종 교	무	45	21.8		3~4	20	9.6
	기독교	94	45.6		5+	13	6.3

주: \* 조사대상 노인 포함.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개수로 표시됨.

3~5명이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51.7%였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의 7개 항목측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모든 항목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은 전체의 60.6%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기능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의 항목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23.6%, 3개 이상은 15.9%였다.

## 2) 가족의 지지

〈표 2〉는 각 가족원 유형별로 그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제외하고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유형에 따라 1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수가 다른데 그 수는 〈표 2〉에 가족원 유형명 바로 옆에 제시되어 있다. 표 속의 빈도는 각 지지의 종류별로 각각의 가족원 유형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노인의 수이며, 괄호 안의 비

〈표 2〉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원 유형

단위 : 빈도(%)

가족원 유형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배우자 (n=83)	61 (73.5)	56 (67.5)	57 (68.7)	42 (50.6)
아들 (n=169)	81 (47.9)	73 (43.2)	86 (50.9)	129 (76.3)
며느리 (n=156)	43 (27.6)	50 (32.1)	107 (68.6)	85 (54.5)
딸 (n=170)	87 (51.2)	49 (28.8)	76 (44.7)	101 (59.4)
사위 (n=152)	21 (13.8)	34 (22.4)	23 (15.1)	50 (32.9)
손주 (n=182)	27 (14.8)	48 (26.4)	36 (19.8)	21 (11.5)
부모 (n=13)	7 (53.9)	5 (38.5)	4 (30.8)	0
형제자매 (n=128)	48 (37.5)	21 (16.4)	12 (9.4)	13 (10.2)

울은 이 숫자를 각각의 가족원 유형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수—〈표 2〉의 첫째 칸에서 가족원 유형명 옆에 제시된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에 해당하는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중에서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도구적, 활동적, 금전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아들은 금전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지지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아들이 있는 노인의 약 반을 차지하였다. 며느리의 경우는 도구적 지지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금전적 지지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 아들, 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딸에게서는 정서적 또는 금전적 지지를 받는 노인이 많았다. 사위가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금전적 지지였으며, 손주에게서 활동적,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는 노인도 약 20% 정도 되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적었지만 부모가 있는 노인의 경우 그들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이 많으며, 활동적 또는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노인에게 도구적, 금전적 도움은 별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반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의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이 다 지지기능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연구의 가정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3)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요인들

〈표 3〉은 가족원 유형 —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형제자매 — 에 따라 노인이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 —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 를 얻거나 얻지 못하는데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노인의 특성 —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 — 과 관계망 특성 — 크기, 접촉빈도, 동거 가족수 — 중에서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와 적어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표에 대한 설명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동거상태이므로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와의 관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좋은 노인일수록 배우자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은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더 좋은 노인들이었다. 배우자로부터 활동적 지지를 받는 노인은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더 높았다. 나이가 적을수록,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이 배우자로부터 도구적 지지도 받는 경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지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적을수록 받는 경향이 있었다.

아들의 지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은 배우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동거 가족수가 적을수록, 활동적 지지는 아들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받는 경향이 있었다. 도구적 지지는 아들의 수가 많고 금전적 지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받고 있었다.

며느리로부터의 지지는 주로 도구적인 지지와 관련된 변수들이 많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동거 가족수가 많고, 며느리와 자주 접촉할수록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며느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작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받았다. 금전적 지지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적 지지는 며느리와의 접촉빈도가 큰 노인일수록 받고 있었다.

딸의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성별과 관련이 있었는데, 남자 노인보다는 여자 노인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동거가족이 적은 노인이 많은 노인보다 딸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딸로부터의 활동적 지지는 노인의 나이가 적을수록,

〈표 3〉 노인의 특성과 가족망의 구조에 따른 가족원의 지지

요인	지지의 종류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성별	남 (n=33)						21.2	78.8	63.6	36.4	
	여 (n=49)					38.8	61.2	40.8	59.2		
나이 (n=83)							$\chi^2=2.809$	$p=0.094$	$\chi^2=4.108$	$p=0.043$	
	교육수준					71.18	67.84	71.04	68.02	71.80	66.19
배우자	무학 (n=12)				$t=2.2632$	$p=0.0263$				$t=4.3257$	$p=0.0000$
	중퇴·졸 (n=42)				75.0	25.0					
아들	고퇴이상 (n=29)				26.2	73.8					
					27.6	72.4					
IADL (n=83)					$\chi^2=10.701$	$p=0.005$					
	동거가족수				19.29	20.60	19.69	20.37			
성별 (n=83)					$t=-1.9478$	$p=0.0549$	$t=-1.9560$	$p=0.0539$			
	남 (n=36)								3.93	3.29	
교육수준	여 (n=133)								$t=1.7354$	$p=0.0865$	
	무학 (n=56)								38.9	61.1	
아들	중퇴·졸 (n=75)								21.1	78.9	
	고퇴이상 (n=38)								$\chi^2=4.826$	$p=0.028$	
결혼상태	기혼 (n=70)						46.4	53.6			
	기혼아님 (n=99)				65.7	34.3	45.3	54.7			
동거가족수 (n=168)					51.5	48.5	65.8	34.2			
					$\chi^2=3.381$	$p=0.066$	$\chi^2=4.723$	$p=0.094$			
					4.08	3.61					
					$t=1.8950$	$p=0.0598$					

〈표 3〉 계 속

아 들	요 인	지지의 종류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관계망크기 (n=169)							1.93 t=-2.2040	2.27 p=0.0289		
	접촉빈도 (n=167)					3.42 t=-3.3157	4.24 p=0.0011	3.5 t=-1.8497	4.0 p=0.0661		
	성 별										
	남 (n=32)	84.4	15.6								
	여 (n=124)	69.4 x <sup>2</sup> =2.874	30.6 p=0.090								
	교육수준										
	무학 (n=52)							19.2	80.8	46.2	53.8
	중퇴·졸 (n=70)							32.9	67.1	40.0	60.0
	고퇴이상 (n=34)							52.9	47.6	64.7	35.3
								x <sup>2</sup> =10.619	p=0.005	x <sup>2</sup> =5.653	p=0.059
	결혼상태										
	기혼 (n=62)							41.9	58.1		
	기혼아남 (n=94)							26.6	73.4		
								x <sup>2</sup> =3.995	p=0.046		
	IADL										
	(n=155)	20.07	19.30					20.22	19.68		
	동거가족수	t=2.0789	p=0.0418					t=1.9001	p=0.0595		
	(n=155)							3.08	4.22		
	접촉빈도							t=-4.3000	p=0.0000		
	(n=155)							3.25	3.98		
		t=-2.3261	p=0.0213					2.25	4.06		
								t=-6.5276	p=0.0000		

머 니 리

〈표 3〉 계속

요인	지지의 종류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성별 (n=169)	남 (n=34)	32.4								
	여 (n=135)	45.9	54.1							
		$\chi^2=5.126$	$p=0.024$							
나이 (n=170)										
		73.29	69.53	73.07	71.17	73.50	71.33			
		$t=2.9874$	$p=0.0032$	$t=1.6722$	$p=0.0963$	$t=1.8286$	$p=0.0697$			
교육수준 (n=170)										
	무학 (n=58)									
	중퇴·졸 (n=70)									
	고퇴이상 (n=42)									
						53.5	46.5			
						27.1	72.9			
						50.0	50.0			
						$\chi^2=10.580$	$p=0.005$			
IADL (n=170)										
		19.56	20.37							
		$t=-2.7466$	$p=0.0069$							
동거가족수 (n=169)										
		3.93	3.31	3.87	3.29	3.90	3.41			
		$t=2.4558$	$p=0.0151$	$t=2.2631$	$p=0.0249$	$t=-1.9070$	$p=0.0582$			
접촉빈도 (n=170)										
		1.97	2.94	1.77	2.85					
		$t=-3.5929$	$p=0.0004$	$t=-4.3446$	$p=0.0001$					
성별 (n=152)										
	남 (n=28)	92.9	7.1							
	여 (n=124)	75.0	25.0							
		$\chi^2=4.285$	$p=0.038$							
나이 (n=152)										
		72.99	70.05	73.68	68.73	73.55	70.61			
		$t=1.6743$	$p=0.0961$	$t=3.5459$	$p=0.0005$	$t=2.3340$	$p=0.0209$			
결혼상태 (n=152)										
	기혼 (n=59)	71.2	28.8							
	기혼아님 (n=93)	82.8	17.2							
		$\chi^2=2.862$	$p=0.091$							
접촉빈도 (n=152)										
		1.60	2.18							
		$t=-2.2292$	$p=0.0273$							

딸

사위

〈표 3〉 계속

요인	지지의 종류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남 (n=182)	여 (n=149)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못 받음	받음
성별 (n=182)	남 (n=33)	여 (n=149)			87.9	12.1				
					72.5	27.5				
					$\chi^2=3.441$	$p=0.064$				
나이 (n=182)					73.59	70.29	73.26	70.81		
관계망크기 (n=182)					$t=2.6724$	$p=0.0082$	$t=1.8153$	$p=0.0711$		
접촉빈도 (n=175)									6.21	4.65
나이(n=128)			3.39	4.11					$t=1.7564$	$p=0.0807$
			$t=-1.8304$	$p=0.0689$						
교육수준 (n=128)			73.43	69.46	72.55	69.05				
			$t=3.2205$	$p=0.0016$	$t=2.0986$	$p=0.0379$				
형제·자매			68.2	31.8						
		무학 (n=44)	48.1	51.9						
		중퇴·졸 (n=52)	84.4	15.6						
		고퇴이상 (n=32)	$\chi^2=11.831$	$p=0.003$						
IADL (n=126)				19.81	20.42					
				$t=-1.7418$	$p=0.0899$					
관계망크기 (n=119)						2.78	4.17	2.80	3.92	
						$t=-2.8010$	$p=0.0059$	$t=-2.2208$	$p=0.0281$	
접촉빈도 (n=119)			1.08	1.62	1.19	1.79	1.23	1.75		
			$t=-2.6755$	$p=0.0100$	$t=-1.9779$	$p=0.0613$	$t=-1.8589$	$p=0.0656$		

주:  $\chi^2$  점수 위에 제시된 숫자는 백분율이며, t점수 위에 제시된 숫자는 평균임.

딸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딸에게 도구적 지지를 받는 노인은 동거 가족수가 적고 딸과의 접촉빈도가 많은 노인들이었다. 금전적 지지는 노인의 교육수준과 및 동거 가족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보다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그리고 동거 가족수가 적은 노인이 딸로부터 금전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사위의 경우는 활동적 지지가 여러 변수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나이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위로부터 활동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위와의 접촉빈도도 지지획득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노인의 나이는 사위의 금전적 지지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이 손주들로부터 받는 지지는 나이가 적은 노인일수록 활동적 및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형제자매의 지지는 정서적 및 활동적 지지가 여러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서적 지지는 나이가 적고,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일수록, 활동적 지지는 나이가 적을수록 받는 경향이 있었다. 형제자매의 지지는 관계망의 크기와도 관련이 깊었는데, 생존하는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도구적 및 금전적 지지를,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족의 지지와 노인 우울

〈표 4〉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지에서 우울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uncan 사후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우울점수는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족망의 존재여부보다는 배우자가 지지적이냐 아니냐하는 가족망의 지지적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과 배우자가 있으나 지지적이지 않은 노인 사이의 우울점수는 차이가 없는 반면,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나 배우자는 있으나 지지적이지 않은 노인보다 낮았다.

반면 아들과 노인의 우울점수와의 관계는 아들의 지지기능보다는 존재여부에 의해 좌우되었다. 모든 지지 형태에 있어 아들이 있으나 지지적이지 않은 노인의 우울점수와 지지적인 아들이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아들이 없는 노인의 우

〈표 4〉 가족의 지지와 노인의 우울정도와의 관계

가족 유형	지지 형태	정서적 지지		활동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금전적 지지	
		Mean	F	Mean	F	Mean	F	Mean	F
배우자	가	8.37 A	F=9.58	8.37 A	F=10.35	8.37 A	F=8.21	8.37 A	F=7.79
	나	8.26 A	p=0.0001	8.18 A	p=0.0001	7.85 A	p=0.0004	7.43 A	p=0.0005
	다	6.07 B		5.90 B		6.15 B		5.98 B	
아들	가	9.14 A	F=4.25	9.14 A	F=4.02	9.14 A	F=4.02	9.14 A	F=4.02
	나	7.54 B	p=0.0157	7.41 B	p=0.0194	7.33 B	p=0.0194	7.29 B	p=0.0194
	다	7.18 B		7.32 B		7.42 B		7.40 B	
며느리	가	8.74 A	F=4.28			8.74 A	F=3.07	8.74 A	F=4.08
	나	7.62 AB	p=0.0152			7.32 B	p=0.0489	7.77 AB	p=0.0184
	다	6.67 B				7.37 B		6.99 B	
딸	가					8.68 A	F=4.67		
	나					6.92 B	p=0.0105		
	다					8.20 A			
사위	가	8.40 A	F=2.85	8.40 A	F=4.65				
	나	7.61 AB	p=0.0605	7.80 A	p=0.0107				
	다	6.26 B		6.10 B					

- 주 : 1) 우울점수 옆의 영어 알파벳은 Duncan test에 의한 서열을 표시.  
 2) 가족유형에서 가 : 해당가족원이 없는 경우, 나 : 가족원은 있으나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 다 : 지지적인 가족원이 있는 경우를 의미.  
 3) 손주,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분석은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4) '가'의 경우는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에 같은 우울점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가'는 해당 가족원이 없는 경우이므로 지지 형태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각 가족원이 없는 경우의 우울점수를 동일하게 사용함.

을 점수는 이 두 집단에 속한 노인의 우울점수보다 높았다.

또한 며느리의 정서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 딸의 도구적 지지, 그리고 사위의 정서적, 활동적 지지에 따라 노인의 우울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며느리가 없는 노인의 우울점수는 정서적, 금전적으로 지지적인 며느리가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보다 높았다.

딸의 지지는 도구적 지지만이 노인의 우울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이하게

도, 딸이 없거나 딸이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보다는 딸이 있어도 딸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노인의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딸의 지지와는 달리 사위의 지지는 정서적 및 활동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가 없는 노인에 비해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사위를 가진 노인의 우울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며, 사위가 있어도 활동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사위를 가진 노인보다는 활동적으로 지지적인 사위가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가 낮았다.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가족의 지지를 집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가족원 유형에 따라 가족원이 제공하는 지지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지지의 제공과 관련된 노인 및 관계망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가족의 지지가 노인 정신건강의 한 측면인 우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인의 우울이 해당 가족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족원의 존재여부와 관련성이 큰지 아니면 가족원의 지지제공 여부와 같은 지지기능과 관련성이 더 큰지를 살펴보았으며, 가족의 지지가 노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가족원의 어떤 유형의 지지와 더 관련성이 큰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모든 가족원이 다 지지적이지는 않은 반면 노인들은 다양한 가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고 있었다. 흔히 노인의 제1차적 부양자가 노인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로 알려져 있지만, 이 조사의 결과는 며느리 이외에도 많은 확대 가족원들이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는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 모두에 관련되어 있었다. 여자 노인들 중에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많아 지역사회 전체로 보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얻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지지를 얻는 노인보다 적지만 배우자는 대체로 노인에게 가장 지지적이었다.

다른 가족원들의 지지는 가족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아들의 경우는 금전적 지지를, 며느리는 도구적 지지를, 딸은 금전적 및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며느리에게서 도구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은 많은 반면, 며느리로부터 정서적 지지 얻을 수 있다는 노인은 약 28% 정도에 불

과하였다. 또한 사위는 금전적 지지를, 손주는 활동적 지지를, 부모와 형제자매는 정서적 지지를 다른 형태의 지지보다 노인에게 더 빈번히 제공하고 있었다.

가족원 유형에 따른 지지형태 및 지지여부에 대한 위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가족원의 존재여부가 지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가족원 유형별로 모두 동일 종류의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모든 조건에서 해당 가족원들이 그들의 규범적인 역할과 관련된 지지기능을 주로 수행하는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특정 가족 유형의 부재시 다른 가족원들이 어떤 지지를 제공하게 되는지, 또한 이런 상황이 특정 지지의 결핍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등 가족원들 사이의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지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제까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했던 노인의 사위나 손주, 부모 등의 확대 가족원들이 일부 노인에게 현재 다양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확대 가족원의 지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의 가능성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는 자녀들 이외의 확대 가족의 노인부양에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의 결과는 가족원 유형에 따른 지지와 이에 관련된 요인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원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지지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노인이 받는 지지는 노인의 개인적 및 가족망의 특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이 배우자나 아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구성원의 수와 무관한 반면, 딸과 같이 지지 제공자가 여자인 경우이면서 노인이 여자인 경우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과 며느리의 지지는 모든 지지의 내용 면에서 노인의 나이와 관계가 없는 반면 그 밖의 가족유형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적은 노인이 많은 노인보다 지지를 더 받는 경향이 있었다. 배우자의 지지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이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얻는 경향이 있는 반면, 며느리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는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더 받고 있었다.

노인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많을 때보다 오히려 적을 때 자녀나 배우자

가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망의 특성 중 가족성원들과의 접촉빈도는 특히 활동적 및 도구적 지지에서 관련성이 많았다. 활동적 및 도구적 지지는 지지 제공자가 노인을 직접 만나야 제공이 가능한 지지이기 때문에 가족원과 노인 사이의 접촉빈도가 지지 제공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는 그들과의 접촉빈도와 무관한 반면 형제자매의 경우는 접촉빈도와 관련이 있었다.

노인의 건강이 감퇴될수록 사회적 지지체계가 노인에 대한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증가시킨다는 Autonucci(1985)의 주장은 이 연구의 대상노인을 통해서는 며느리의 경우만이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며느리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는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이 낮은 노인에게서 높은 노인보다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른 가족 유형으로부터의 지지는 기능이 더 좋은 노인들이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적은 노인들보다 다양한 가족유형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 결과는 나이가 든 노인들이 나이가 적은 노인보다 실제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의 기대수준은 더 커지는데 비해 가족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더 많은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 노인보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비공식적 지지망의 확대에 대한 개입 실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이 여러 가족 유형으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에 대한 지지가 며느리와 같은 특정유형의 가족원에게만 치중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배우자나 딸과 같은 가족원들의 도구적 지지가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에게 주어지고 며느리의 도구적 지지만이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서 더 많이 응답되고 있다는 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나이의 증가에 따라, 그리고 일상생활동작능력의 감소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해지는 노인들에 대한 부양을 다양한 가족원들을 통해 분담하는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지와 노인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배우자의 경우는 그 존재여부보다는 배우자의 지지

기능이 우울점수와 관련이 있는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는 지지기능보다는 존재 여부가 우울점수와 더 관련이 많았다. 딸의 경우는 도구적 지지만이 노인의 우울점수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딸이 있으되 지지적이지 않은 노인의 우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노인이 각기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 갖는 존재의 의미와 관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딸의 도구적 지지와 높은 우울과의 관계는 딸에게서 도구적 지지를 받는 상황이 노인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는 딸에게서 도구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곧 아들과 며느리의 부채를 의미할 수도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변수들이나 가족의 지지와 노인 우울과의 관계성 규명하는 데 좀더 고급통계방법들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관련성 가질지도 모르는 많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성이 앞으로의 연구들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여러 차원에서 노인의 우울정도가 가족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우울 이외의 다른 차원의 정신건강도 노인이 갖는 지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정신건강관련 척도를 사용하여 지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원의 지지를 분석하였다. 가족망과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 행동의 주체인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들과 노인-가족원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지를 가족원에게서부터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방적인 측면만을 다루었으나, 노인이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지지의 영향과 이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위나 손주들도 노인들에게 좋은 지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부양부담에서 이들의 역할분담도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활동적 및 도구적 지지는 가족원과 노인 사이의 접촉빈도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도 노인 부양을 위해 가능하면 가족원들이

노인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인을 위한 가족원의 부양분담에서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차원에서 특히 배우자의 지지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로부터의 지지 제공여부는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부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사업가는 가족이 나이가 많고 일상생활동작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 대한 부양을 며느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가족원 유형들과 분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나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이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함을 가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원의 지지가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가족 이외의 다른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지지망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때로는 우편배달부, 야쿠르트 배달부, 약사, 목사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연적 도움제공자들'(natural helpers) 과의 기존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미망인들이나 자녀가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상호원조망(mutual help networks) 을 형성하여(Silverman, 1974) 정서적 지지를 얻는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망을 확대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정신의학》 제35호, pp. 298~307.
- 기백석·이철원. 1995.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와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정신의학》 제34호, pp. 1875~1885.
- 김혜원. 1996.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지지와 퇴직에 대한 불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민무숙. 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15호, pp. 74~90.

- 박영란. 1987. "한국 노인의 부양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서미경. 1990. "노인의 정신건강과 부양의 완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0호, pp. 68~86
- 서병숙·이 현. 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 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33호, pp. 43~67.
- 송효석. 1988.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양옥경. 1998. "노인의 거주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편.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 윤경아·진기남·성규탁. 1992. "노인의 고질적 긴장요인, 사회적 지원과 주관적 안녕 상태." 《한국노년학》 제12호. pp. 56~64.
- 윤 희·한경혜. 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14호. pp. 117~139.
- 장인협·오세란 역. 1996. 《사회지지체계론》 서울 : 사회복지실천연구소.
- 전길양·김태현. 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3-1호, pp. 17~38.
- 최정아. 1991.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정아·서병숙. 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2호. pp. 65~78.
- Antonucci, T. C. 1985.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E. Shanas & R. H. Binstock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 Arling, G. 1987.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42(1) : 107~113.
- Brody, E. M., & Schoonover, C. 1986. "Patterns of Parent-Care When Adult Daughters Work and When They Do Not." *The Gerontologist*. 26. pp. 372~381.
- Brown, A. S. 1974. "Satisfying Relationship for the Elderly and their Patterns of Disengagement." *The Gerontologist*. 14. pp. 258~262.
-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 pp. 434~463.
- Cantor, M. H., 1991. "Family and community : Changing roles in an aging society." *The Gerontologist*. 31. pp. 337~340.

- Caplan, G. & Killiea, M. 1976. *Support System and Mutual Help*. NY : Grune and Stratton.
- Choi, N. G., & Wodarski, J. S.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of Elderly People : Does Social Support Show Down Physical and Functional Deterioration?." *Social Work Research*. 20(1). pp. 52~6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 310~357.
- Dono, J. E., Falbe, D. M., Kail, B. L., Litwak, E., Sherman, R. H., & Siegel, D. 1979. "Primary Groups in Old Age : Structure and Function." *Research on Aging*. 1. pp. 403~433.
- Eaton, W. W. 1978.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pp. 230~234.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Social Service Review*. Mar. pp. 133~149.
- Hooyman, N. R. & Kiyak, H. A. 1993. *Social Gerontology*. 3r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Krause, N. 1986.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 pp. 512~519.
- Krause, N., Liang, J., & Keith, V. 1990.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er Life." *Psychology and Aging*. 5. pp. 315~326.
- Lin, N., Ensel, W. M., Simeone, R. S., & Kuo, W. 1979,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0. pp. 108~119.
- Litwak, E. 1985. *Helping the Elderly :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ew York : Guilford Press.
- Rook, K. S., & Schuster, T. L. 1996. "Compensatory Processes in the Social Networks of Older Adults." In G. R. Pierce, B. R. Sabras, & I. G. Sabras(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New York : Plenum Press.
- Schaefer, C, Corne, & Lazaru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 Medicine*. 4. pp. 381~406.
- Shanas, E. 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Gerontologist*. 19. pp. 169~174.
- Silverman, P & Associates. 1974. *Helping Each Other in Widowhood*. New York : Health Services Press.

- Stoller, E. P. 1990. "Males as Helpers : The Roles of Sons, Relatives and Friends." *The Gerontologist*. 30. pp.228~235.
- Stroller, E. P. & Earl, L. L. 1983. "Helping with Activities of Everyday Life : Sources of Support for the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Gerontologist*. 23. pp.64~70.
- Tennstedt, S. L., Crawford, S., & McKinlay, J. B., 1993. "Determining the Pattern of Community Care is Coresidence More Important than Caregiver Relationship?." *Journal of Gerontology*. 48. pp.S74~S83.
- Thompson, M. G., & Heller, K. H. 1990. "Factors of Support Related to Well-Being: Quantitative Social Isolation and Perceived Family Support in a Sample of Elderly Women." *Psychology and Aging*. 5. pp.535~544.
- Wellman, B. & Hall, A. 1986.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 Implications for Later Life." In V. M. Marshall(ed.). *Later Life :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Yesabage, J. A., Briak, T. L, Lum, O., Virginia, Huang, Michael, Adey, Von Otto, Leirer.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7(1). pp.37~49.

##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 A Study by Types of Family Members

Hong, Soon hae

(Seoul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kinds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various types of family members, relationships between types of family support and personal variables of the elderly and structural variables of the family network,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Here, family included a spouse, sons and daughters and their spouses, grandchildren,

siblings and parents of an older person. Social support consisted of emotional, instrumental, financial help and social companionship. Two-hundred-eight older persons of age 60 years and over were interview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n older person's spouse tended to provide more for emotional support, sons for financial help, daughters-in-law for instrumental support, and daughters for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ome elderly were also provided for emotional support by parents and siblings. Possibility of daughters-in-laws and grandchildren as support providers was also verified.

Various factors among personal and network-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ny types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various types of family members. In general, while younger female elders, elders with good IADL ability or more frequent contacts with family members tended to have social support from more family members, support from daughters-in-law was provided to the elderly with less functional abilities.

Various types of social support from a spous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level of the elderly. Their depression level was more related to whether or not sons and daughters-in-law exist rather than whether or not they provide social support. Practical methods to increase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were discussed.